

## 금주의 칼럼

**“그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시편 107:1~16)”**

진개편으로 헤어지기 전, 난 간사의 고백이 마음에 남는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고민했던 20대 마지막에 허니님의 영감을 보고 꿈꾸던 가슴 뛰는 4년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시절이라 추억하며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추억거리를 만들어주신 것과 아름다운 시절에 함께 해주신 좋은 간사님들을 평생의 동역자가 만나게 하십시오.” 우여곡절 많은 지난 4년 세월이었지만,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태도와 습일이 가장 큰 강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노래가 시편 107편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네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간증한다. 광야와 감옥에서, 질병과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광야와 풍랑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닥치는 고난이다. 그리고 감옥과 병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한 대가로 치르는 고난이다. 인생이 광야와 같을 때가 있다. 이번엔 취창한 어떤 형제는 면전에 40년 가까이 떨어졌다고 한다. 최근에 낙향했을 때 가족적인 문자를 보내왔다.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겠다는, 너무 지쳐서 다시 도전할 힘이 안 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해도 위료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구하고 구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 영혼이 지치고 마음이 무너진다. 그리고 통제력을 상실한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한다.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실패를 많이 경험하면 무기력해져서,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다른 일조차 아예 노력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자면 죄와의 싸움에서 무기력을 경험했을 것이다.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면 자포자기하게 된다. 나는 목사이면서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이다. 교회를 위해 최우선으로 헌신해야겠지만, 가정에도 헌신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 가정을 희생시키며 교회에 헌신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마다, 좋은 목사이면서 동시에 좋은 아빠가 될 수는 없을까 고민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직장인 아버지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간사나 리더가 두 번 연속으로 사역에 실패하면 다음 개편 때는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광야는 힘들다. 그 속에서 지치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마음의 통제력을 상실한다.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을 너무 잘 안다. 과거 이런 고난을 직접 겪었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는 70년을 고스란히 겪은 노인들도 있었다. 이대로 인생이 끝날 것만 같은 절망감에 울며 잠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지금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다시 고국 땅에 돌아와 그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들은 근심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헤세드’ 즉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을 발견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교만으로 인해 인생이 바닥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감옥 같은 현실에서 건져주셨다. 광야를 걷다보면 피곤하고 심히 지친다.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히면 쇠약해진다. 지혜롭지 못하게 살다가 심한 질병에 걸리면 너무 고통스럽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우리의 지식과 노하우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다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시의 중심 메시지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소망을 잃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기도하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다. 기도하면, 설령 우리가 죄를 지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해도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 살리신 주의 백성들이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포기하지 말자. 낙심이 될 수 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다. 스트레스와 실망감으로 죄에 넘어질 뻔할 수 있고, 안타깝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쉬지 말자. 울음을 그치지 말자.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회개하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는다.

**기도문** 정승희 전도사 (15진)

사랑의 하나님! 거친 풍랑속에서 원망의 모습이 아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이신지를 기억하며 잠잠히 주님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개편 이후에 새롭게 일어날 변화들이 삼일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  
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섬기는 분들

부목사	강병희 강종욱 임형진 박두진	신혼1진 새가족부 장년2진 장년1진	010-9903-7198 010-2546-7494 010-9184-3156 010-7310-3103	장로	이광영 나원주	허방 이대규 박신찬
	신용길 문순진 김정양 전종국 이영주 양재현 안성권 김성태 전영민 김현민 이윤춘 고석창 서복성 이희서	1진 해외선교부 17진 13진 18진 5진 9진 장년3진 10진 6진 3진 7진 14진 유치부 신혼2진	010-5113-9936 010-9428-9645 010-2702-8039 010-2392-8061 010-8769-0191 010-5473-0698 010-2251-3749 010-2241-1950 010-4855-5838 010-8311-8133 010-2396-5253 010-2834-7697 010-4016-6428 010-9166-5991	지휘자/ 반주자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 말갈 하늘 저녁 수요 1 수요 2	윤원준/장성개 이진아/김성원 이근영/이다정 박운진/이연나 권경란/하민정 박사관/장홍주 최대승/홍예리 장규경/박신영 김부자/나은진 주은지/김유리
강도사	김현민 이윤춘 고석창 서복성 이희서	3진 7진 14진 유치부 신혼2진	010-8311-8133 010-2396-5253 010-2834-7697 010-4016-6428 010-9166-5991	교육전도사	김정호 이진 박수영 이홍우 김현우 이요셉 정승희 김수현 이규현	8진·영아부/010-2505-0219 유아부/010-2785-4042 초등부/010-2656-4584 2진·중등부/010-9859-3591 고등부/010-9441-8401 학원선교부/010-6738-1404 15진/010-6307-8087 20진/010-4570-2556 해외선교부/010-2771-1464
전도사 진장	현혜국 이은희 조시환 전소영 이지혜 김덕희	11진 19진 12진 4진 16진	010-9078-1425 010-8940-0241 010-5555-4031 010-5325-4987 010-5061-2880 010-7195-3143	선교사	전병두 박미진	일본/81-90-8116-9372 대만/001-886-912203824
행정실장 사무간사	송오혜 박석순 전익산 위철 정영현 김진경	010-2001-4458/070-4264-9303 010-6273-0072/070-4264-9304 010-3861-4521/070-4264-9305 010-3437-7939/070-4264-9306 010-9072-3745 010-3056-5901/070-4264-9307 FAX 3273-5297		관리	남재희 이성일 전병이 장준호 설비 이찬송 이수진	A관 010-2449-3593 C관 016-9444-2996 D관 010-3955-9138 전기 010-8640-9514 설비 010-7123-3593 전기 010-9822-2563 설비 010-7770-2196
방송실 일반사무	김정애 윤석주 이신주 조흥규	010-3213-3131 010-5392-6626 010-6449-2241 010-3776-4175		기도원관리	이대규 기도원	010-8869-1702 031-592-8385

국내선교	이광현 이우근	(영산교회) (제주 토산교회)	역종근	이정희	070-4109-1489
			경비	유정원	070-4264-9350
해외선교				신홍식(태국)	정운진(안·방·파)
				오** (대만)	이영숙(일본)
				필리엄길(동아시아)	이동현(미얀마)
				임선희(나미비아)	남정길(B국)

## 교회안내도



저수지 교회 2012. 4. 22  
삼일교회 제59권 제17호

2012년 4월 22일

#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



# Samil Church

## 저수지 교회

B관 베다니관\_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4  
(청파동1가 삼일교회 교육관)

A관 아브라함관\_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89길 18-19

C관 써클관\_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5

D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34-2

삼일기도원\_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철마산로 336-10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일교회

창립일 1954.3.1

## 예 배 안 내

주일 1-5부 예배

예배시간	1부 오전9:00	2부 10:30	3부 12:00	4부 오후1:30	5부 3:00
말씀	이익주 목사(1-3부)			임형진 목사(4-5부)	
헌신기도	남재희 집사	전세봉 집사	장구경 집사		
본문	빌 2:19-24(1-3부)			눅 8:43-48(4-5부)	
말씀	“만나면 서로에게 힐링이 되는 만남”			“혼자 아파하지 말고	

주일 6부 7부 예배(젊은이예배)

예배시간 오후 4:30 / 오후 6:00  
설교 김정안 목사  
본문 행 1:3-9  
말씀 “파도가 높으면 더 큰 배

## 저녁예배

예배시간 오후 7:45  
설교 임태우 목사  
본문 히 13:7-16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 수요예배

예배시간 오후 5:00 / 오후 7:30  
인도 전영민 목사  
본문 마 5:1-12  
말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금요철야예배

예배시간	오후 11:00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인도	1부: 신용길 목사	설교: 문승진 목사
	2부: 정승희 전도사	

새벽기도회

예배시간 오전 5시/6시/7시  
(토·주일: 개인기도)

말씀	월: 양재현 목사	화: 전종국 목사	수: 김현민 목사
목: 김성태 목사	금: 현혜욱 강도사		

## 4월

배 봉사위원	1부	2부	3부
1주	박신찬 장로	나원주 장로	허 방 장로
2주	이윤석 집사	이수관 집사	최승돈 집사
3주	박신찬 장로	나원주 장로	이대규 장로
4주	남재희 집사	전세봉 집사	장구경 집사
5주	김경준 집사	주병옥 집사	임두호 집사

5주 김경준 집사 주병옥 집사 임두호 집사 **저녁예배** 주병옥 집사



